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가치를 통한 향교/서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안

방미영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교수

본고는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이 인류가 함께 보호하여 그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이 됨에 따라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평가기준을 살펴보고, 향교/서원의 유교문화가 낡은 관습과 이념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과 발전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2019년 7월 6일, ‘한국의 서원’ 9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3차 총회에서 ‘한국의 서원’이 9년여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순간 우리 대표단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뻐하였고, 이 장면은 보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의 ‘한국의 서원’은 <그림 1>과 같이 소수서원(경북 영주시), 남계서원(경남 함양군), 옥산서원(경북 경주시), 도산서원(경북 안동시), 필암서원(전남 장성군), 도동서원(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산서원(경북 안동시), 무성서원(전북 정읍시), 돈암서원(충남 논산시) 등이다.

한국은 1950년 6월 14일 55번째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고, 올해로 가입한 지 72주년이 되었다.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한국의 갯벌(2021)’, ‘한국의 서원(2019)’,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2018)’,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남한산성(2014)’,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 ‘조선왕릉(2009)’,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2)’,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수원화성(1997)’, ‘창덕궁(1997)’, ‘석굴암과 불국사(1995)’,

‘종묘(1995)’, ‘해인사장경판전(1995)’ 등 15곳이다 (‘한국의 유산지’도 홈페이지).



그림 1.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전경

(이미지 출처 :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선정기준

세계유산에 대한 근거는 1972년 제1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두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표 1>과 같은 10가지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표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정기준

- (i)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의 걸작을 대표하기 위해
- (ii)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 계획 또는 조경 디자인의 발전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또는 세계의 문화 영역 내에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전시하기 위해
- (iii) 살아 있거나 사라진 문화 전통이나 문명에 대해 독특하거나 최소한 예외적인 증언을 하는 것
-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
- (v) 문화(또는 여러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인간 정착, 토지 이용 또는 해상 이용의 탁월한 예,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환경과 인간의 상호 작용
- (vi)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 또는 신념,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지닌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유형적으로 관련되는 것
- (vii) 탁월한 자연적 아름다움과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최상의 자연 현상 또는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
- (viii) 생명의 기록, 지형 개발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학적 또는 지리학적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를 나타내는 뛰어난 사례
- (ix) 육상, 담수, 연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진행 중인 생태학적 및 생물학적 과정을 나타내는 뛰어난 사례
- (x) 과학이나 보전의 관점에서 볼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지 보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자연 서식지 포함

(출처: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가치를 ‘(iii) 살아 있거나 사라진 문화 전통이나 문명에 대해 독특하거나 최소한 예외적인 증언을 하는 것’의 항목을 적용하였다. 이와 함께 결정문에 ‘한국의 서원은 교육기관으로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며,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형태로 그중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춰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그 기능과 배치,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변형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라 할 수 있다.’라고 명문 하였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18.0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인류가 함께 보호하여 그 가치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이 되었다. 그러나 향교/서원의 유교문화는 젊은 세대에게 낯은 관습과 이념으로 인식되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어갈 청년 유림의 유입이 녹록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행히 지난 7월 19일, 1946년 창립된 유림을 대표하는 유도회(儒道會) 25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영갑 회장은 취임사에서 “많은 국민이 유교를 ‘꼰대’나 ‘고리타분한 이념’이라고 인식한다. 유교도 변화한 시대에 맞춰가겠다.”라며 의례 간소화로 현대사회에 맞는 유교문화의 변화를 선포하였다. 유림사회의 변화는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온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향교/서원 지원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청이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 향유에 이바지하는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가져오는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향교/서원은 ‘문화재와 연관된 유적·유물이나 이야기 등 내재

적 가치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문화재의 특색을 살려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 및 연중 지속해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문화재청, 2021.06).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교문화활성화 사업으로 성균관을 통해 지원하는 향교·서원문화 관광프로그램은 1) 향교·서원의 공간을 문화체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 2) 유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대적 조류에 부응, 3) 향교·서원 전문가(청년유사)를 양성하여 관광문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계승 세대 육성, 4) 향교·서원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및 전통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유교의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 사업단, 2018). 이를 위해 향교와 서원은 ‘해당 향교·서원이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주변의 문화, 역사, 자연 자원 등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안) 기획해야 한다(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 사업단, 2021).

그러나 <표 2>의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향교/서원 프로그램이 참여자에게 충분히 공감되고 인식되지 못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향교/서원이 세계유산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2. 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 향교/서원 프로그램 개선점

항목	사례 수	%
전체	209	100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14	6.7
예산지원 확대	9	4.3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8	3.8

항목	사례 수	%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6	2.9
편의시설 개선	5	2.4
교통접근 개선	4	1.9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시민 참여 확대	4	1.9
운영인력 확보	3	1.4
관련 프로그램 없음	3	1.4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2	1.0
지역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	2	1.0
담당자 의식 및 서비스 개선	2	1.0
행정서비스 개선 요망	1	0.5
활용 프로그램 규모 확장이 필요	1	0.5
체험 프로그램 확대	1	0.5
일반 국민의 관심 필요	1	0.5
획일적이고 유사한 프로그램이 문제	1	0.5
현대문화와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	1	0.5
다양한 장소가 요구됨	1	0.5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의식 개선	1	0.5
접근성 부족	1	0.5
문화재 개발	1	0.5
구체적인 대상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1	0.5
문화유산 관련 정책에 대한 혁신 필요	1	0.5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많음	1	0.5
문화유산 관련프로그램 운영기관 부족	1	0.5
시설 이용에 따른 시간적 한계가 있음	1	0.5
올해 신규사업	1	0.5
잘 모름/무응답	135	64.6

(출처 : 문화재청, 2018)

■ ‘한국의 서원’ 브랜딩 및 서원/향교 프로그램 발전 방향

○ ‘한국의 서원’ 통합브랜드 구축

필자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 세계유산이 된 9개 서원 통합브랜드 CI, BI 구축을 제일 먼저 제

언하였다. 다행히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7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이미지(로고, 심벌마크) 공모전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통합브랜드 구축은 <표 2>에서 거론된 ‘적극적인 홍보방안’으로 연계할 수 있다.

○ 관광상품 개발

통합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 판매로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서원’이 오래도록 기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서원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보완될 수 있다. 통합브랜드를 통한 관광상품(갓, 벼루, 붓, 부채, 서책, 9개 서원을 상징하는 건축물 축소형 열쇠고리), 다기, 손수건 등 ‘한국의 서원’과 연계된 아이템 선정)은 추후 온라인 판매를 통해 해외로도 유통할 수 있다.

○ 후속세대 연구자 배양을 위한 학술상 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에 대한 가치와 브랜드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발굴 및 차세대 연구자 육성이 필요하다. <향교/서원문화학술상(가칭)>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인정된 9개 ‘한국의 서원’의 보존과 보호를 지속하기 위해 연구, 저작, 학술지 발표 등으로 창의적 업적을 이룩한 연구자에게 시상하기 위함이다.

○ 문화관광 효과를 위한 체험형 콘텐츠 개발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기반으로 문화관광의 체험 요소는 교육적 체험, 오락적 체험, 심미적 체험, 일탈적 체험의 4요소로 분류된다. 따라서 향교/서원 프로그램은 체험 요소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전통놀이, 전통음악, 전통음식 등을 체험 요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연계 관광프로그램 확대

향교/서원이 배양한 인물의 스토리를 지역연계 투어 코스로 개발하여, 향교/서원이 현대사회에 중요한 문

화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향교·서원 문화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투어 코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 청년유생 인턴십 제도화

향교/서원이 유림의 고령화로 인해 실감콘텐츠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유생(청년유사) 인턴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향교/서원이 전통과 현대를 융복합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소년 및 청년단체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청년유생의 날(가칭)>을 지정하고 전통놀이, 전통음악, 전통음식과 연계한 축제와 포럼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속해서 인식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문화재청(2018). 『2018년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

_____ (2021.06). [보도자료] 2022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안).

방미영(2021). 「202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자문보고서」.

성균관 유교문화활성화 사업단(2019). ‘2018 유교문화활성화사업 결과보고서’.

_____ (2021). ‘2021 유교문화활성화사업 향교·서원 선정 공모’.

이상해(2019).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한국성원학회, 한국서원학보, 9, pp 1-24.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2018.02).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pp 22-23.

Aaker, J. L.(1997). “Dimensions of Brand Personality”,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4(3), pp 347-356.

UNESCO(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유산등재] 등재기준- 세계 유산 등재기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Available: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b%93%b1%ec%9e%ac/%eb%93%b1%ec%9e%ac%ea%b8%b0%ec%a4%80/>, (접속일 2022-07-15).

‘한국의 서원’ 홈페이지, [9개 서원이야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9개 서원 소개,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Available: <http://k-seowon.or.kr/>, (접속일 2022-07-15).

‘한국의 유산지도 :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홈페이지, [한국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Available : <http://map.unesco.or.kr/>, (접속일 2022-07-15).



본 저작물을 인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영(2022).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가치를 통한 향교/서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발전방안”.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아키스브리핑 제293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방미영 mybang419@naver.com
ACKIS브리핑 발행 2022.07.28.

#향교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 #전통 #유교
#문화유산의활용